

보 도 해 명 자 료

(15. 3. 27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경남기업 광산 지분 매입 당시 광물공사,
지경부와 사전협의를” (15.3.27, 경향신문)

1. 보도내용

- ☐ 광물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경남기업 지분을 매입할 당시 지경부와 사전협의를 완료
- ☐ 당시 지경부 장관이 최경환 現 부총리로 하베스트에 이어 경남기업에서도 ‘최경환 책임론’이 거론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광물공사의 경남기업 지분 매입 건도 광물공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안임.
- ☐ 지분 매입과 관련하여 당시 지경부 실무진에게 보고된 바는 있으나,
 - 이는 주무부처와 산하기관과의 일반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수준이었으며,
 - 실무적인 사항이었으므로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바 없음.

※ 자료문의 :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박 훈 팀장(044-203-5150)
허은수 사무관(044-203-5151)